

Robert A. Peterson 박사, 누가-사도행전 신학, 19회, 마셜, 사도행전의 역사성, 누가의 바울 초상

이것이 바로 로버트 A. 피터슨(Robert A. Peterson) 박사와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9, 나, 하워드 마셜, 사도행전의 역사성, 누가의 바울의 초상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신학을 계속 연구하며 주님을 찾도록 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 곧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어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워드 마셜(Howard Marshall)의 좋은 책인 사도행전의 역사성에 관한 주석(Commentary on the Historicity of Acts)을 공부하고 있으며, 사도행전의 역사성 개요 부제목까지 읽었습니다. 역사적 회의주의는 첫 번째 소제목이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의 역사적 배경, 출처의 문제, 누가의 신학적 동기, 사도행전의 연설, 다섯 번째는 누가의 바울 초상화, 사도행전의 역사성이다. 앞 절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구성에 나타난 몇 가지 신학적 관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로 인해 사도행전의 역사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복음주의 학자인 워드 가스쿠에 (Ward Gaskue) 는 사도행전, 비평의 역사 또는 사도행전의 학문적 조사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워드 가스쿠에 , 가스쿠에.

19세기에 소위 튀빙겐 비평 학교(Tübingen School of Criticism)는 사도행전을 교회 초기를 지배했던 베드로와 바울 사이의 갈등을 마무리하려는 최근의 시도로

간주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순조로운 타협의 그림을 제시하고 갈등의 가혹한 현실을 얼버무렸습니다. 세기 말엽에 특히 윌리엄 램지 경(Sir William Ramsey)의 연구자들은 사도행전의 이러한 해석을 불신하게 만들고 누가복음의 높은 역사적 품질을 재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윌리엄 램지(William Ramsey), 세인트 폴, 여행자와 로마 시민, 1895년, 그리고 1920년, 다시 또 다른 호, 또 다른 판. 램지는 의심할 여지없이 많은 동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요점을 제시했으며, 이용 가능한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누가의 역사적 정확성에 대해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관점이 20세기 초 영미 학문의 사도행전 주요 저작인 『기독교의 시작』에서 좀 더 온건하게 제시되었다.

이 작업에 기여한 사람들은 다양한 사상 학파에서 왔으며 가장 확실하게 누가에 대해 맹목적인 찬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의 작품을 자유학문의 기준으로 평가했고,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상당한 가치가 있는 역사적 작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평결은 FF Bruce와 CSC Williams의 전후 논평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강력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사도행전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훨씬 더 회의적인 태도가 양식 비평 방법을 책에 적용한 마틴 데벨리우스(Martin Debelius)의 일련의 에세이에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통에 대해 자유롭게 작업하는 창의적인 신학자로서 신약성서 작가들의 기능을 강조하는 편집비평이 발전했습니다.

1954년에 출판된 한스 콘젤만(Hans Conzelman)의 누가복음 신학에 대한 주요 연구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많은 독자들에게 누가는 주로 신학자였으며 역사가로서 형편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립했습니다. 2년 후, 에른스트 헨헨(Ernst Haenchen)이 쓴 사도행전 주석의 초판이 나왔습니다.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이 신약성서에 관한 역사적 회의론의 궁극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헨첸의 방법은 사도행전의 매 순간마다 누가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록된 자료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가장 빈약한 구전 전통에 기초한 초대 교회에 대한 누가의 교훈적인 설명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사도행전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누가의 역사적 정확성은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내러티브는 전통에 기반을 거의 두지 않고, 역사적 불일치와 개연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실과 같은 지루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역사 소설가의 풍부한 정신의 산물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H. Conzelman의 다소 후기 논평에서도 같은 노선이 취해졌다. 비록 그의 취급이 간결하다는 것은 그의 역사적 회의론이 Haenchen의 그것보다 훨씬 더 자의적이고 근거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말이다. 현재로서는 Haenchen Conzelman 접근 방식이 유럽 대륙에서 지배적이며 거의 경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 Marshall은 각주에서 Martin Hengel의 *Acts and the History of Earliest Christianity*, 1979가 누가를 강력하게 옹호했으며 그가 다른 고대 역사가들보다 덜 신뢰할 만하다고 단언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강력한 지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확실히 급진적인 회의론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역사적 회의론은 우리의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평가되게 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첫째, 형식비평과 편집비평과 관련된 역사적 회의주의의 일반적 배경이 있다.

전통을 보존하고 전수한 후 이를 글로 통합하는 교회 내의 세력들은 신학적인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심이 없거나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정됩니다. 초대교회는 역사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결론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강조한 이탤릭체는 입증 가치가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히 누가와 같은 작가가 자신의 신학적 목적으로 인해 기독교의 시작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의도적으로 언급할 때 신학적 동기가 관심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번 입증되었습니다. 형식비평과 편집비평은 완벽하게 합법적인 접근법이며, 역사적 회의론으로 특징지어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적 배경.

Lucan의 연구에 대한 Ramsey의 주요 공헌 중 하나는 Luke가 상세한 역사적 배경 문제에 대해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실제로, Ramsey가 사도행전을 2세기 로맨스로 보는 Tübingen의 관점을 이전에 받아들인 것을 포기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관찰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본질적인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분야의 행위. 여기서 주요 작업은 AN Sherwin-White의 작업이며 그의 접근 방식은 현재 Colin J. Hemer에 의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Sherwin-White는 조심스럽게 글을 쓰고 증거에 의해 정당화된 것 이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의 책의 주요 취지는 누가 대부분 1세기 로마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루크가 이야기의 세부 사항에 대해 옳다면 주요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의 결실은 RPC Hansen의 간략하지만 도움이 되는 주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가의 기록이 독일어권 학문에서 관례적인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역사적 정확성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Sherwin-White를 무시하거나 작가가 배경이 정확하더라도 반드시 주요 줄거리가 정확하지는 않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소설가는 자신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이 제안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루크는 사실성을 추구하는 현대 소설가처럼 글을 썼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시대착오적입니다.

그것은 또한 누가의 정확성이 작가가 거의 연구할 가능성이 없는 종류의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정확성의 우연성은 그것이 인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누가 신뢰할 수 있는

역사를 썼다는 자신의 주장과 그의 정확성에 대한 증거를 한쪽으로 치우기 전에 누가가 역사 소설을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좋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소스의 문제이다. 사도행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자가 사용한 출처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책이 바울의 동료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자신은 16장까지 무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앞 부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정보에 의존했음이 분명합니다.

J. DuPont은 1964년에 쓴 글에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사용한 출처 중 어떤 것도 비평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견적을 단습니다. DuPont, Sources라는 제목으로 요약된 책, 166페이지.

이후에 이 추정치를 크게 변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루크가 획일적인 편집 스타일 아래에서 사용한 모든 출처를 성공적으로 숨겼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일부 이야기를 형식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자가 일어난 일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자 설명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다른 이야기에 대한 편집 비판적 분석은 그 이야기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성.

주장되는 역사적 저작의 출처를 추적할 수 없다면, 저자가 선의를 갖고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에 포함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의 어려움을 인정해야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사도행전의 전통 문제에 관한 중요한 에세이에서 Jervel은 사도들의 활동과 회중의 설립이 교회의 선교적 선포의 일부를 형성한 사건이었다는 독립적인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관한 전통을 보존하는 데 유리합니다.

둘째, 복음에서 우리는 누가가 그의 자료를 사용한 것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마가복음과 그가 마태와 공유한 잃어버린 자료를 활용했다고 인정 한다면, 우리는 그가 이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어느 정도 편집의 자유를 누리고 자신의 출처를 그대로 그대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그 출처에 충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FC Burkitt는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루크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발명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견적을 단습니다. 반대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가 사도행전에서 비스듬하게 행동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듀폰의 다소 비관적인 결론은 사도행전의 출처에 관한 일부 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더 그럴듯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특정 부분이 1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행 16:10-17, 행 20:5-21.18, 행 27:1-28.16. 이 현상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은 이 부분이 설명된 사건에 참여한 사람이 구성한 자료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도행전의 저자가 일반적인 3인칭 서술 방식으로 스타일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다르게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사용이 제안되었습니다 바다 항해의 맥락에서 사용되거나 저자가 멀리 여행을 했기 때문에 유능한 작가라고 주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러한 설명은 작가의 정직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지만, 어쨌든 유도된 유사점은 요점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1인칭 스타일이 목격자 자료의 사용을 지적하고 이것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평가했을 것이라는 점이 더 설득력이 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관해서도 여전히 가장 유력한 가설은 누가 여러 교회로부터 정보를 얻었고 아마도 이야기에 등장하는 몇몇 주요 인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가이사랴, 안디옥 등에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저술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의 자료를 너무 철저하게 연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문체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FJ Fulks Jackson의 판결은 특히 Acts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의 자료 비평이 대체로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Bruce, FF Bruce, Acts, 21페이지에서 인용됨.

개별 구절에서 비평가는 저자가 전통을 사용하는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원본을 자신의 말로 완전히 다시 작성할 수 있으므로 원본 형식을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저자 자신의 문체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가 출처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도록 유혹할 수 있는 위험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이런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Marshall은 이 논평의 범위 내에서 소스 분석은 실행 가능하지 않으며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더 큰 작업에 맡겨야 한다고 썼습니다. 넷째, 누가의 신학적 동기, 즉 사도행전의 연설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의 신학에서 누가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주요 매체는 말이었습니다.

영국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피터, 폴 및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다양한 연설, 또는 축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말한 내용에 대한 설명, 적어도 전통에 기초하고 구조와 표현을 표현하는 작문이라는 견해를 옹호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설교의 세부 사항. CH Dodd, 사도적 설교와 그 발전. FF 브루스, 사도행전의 연설.

디벨리우스 (Martin Dibelius)와 휴 윌킨스(Hugh Wilkins)가 대표하는 학문의 또 다른 경향은 그 연설이 전통에 기초를 거의 두지 않았으며 거의 전적으로 누가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누가 자신의 글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회의적인 평결의 근거는 연설 자체에 대한 분석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약의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초기 설교의 단편과 일치하지 않으며, 연설은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변형된 공통 구조를 따르며, 언어와 스타일은 누가복음이며, 그들은 함께 누가 신학의 개요를 제공하며 각 연설은 전체 효과에 고유한 기여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보이는 것보다 덜 강력합니다. 첫째, 그의 책의 가장 최근 판에서 윌킨스는 자신의 이전 진술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제시해야 했으며 일부 연설에는 이전에 허용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전통적인 근거가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의 정도는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많은 학자들이 연설에 원시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 특히 구약성경을 사용하는 유대인의 패턴에 주목했습니다. 연설의 스타일은 신중한 문학 작품이었다면 기대했던 것만큼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전통을 편집적 틀에 통합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중복과 사소한 불일치입니다.

셋째, 연설에서 공통된 구조를 추적할 수 있지만 개별 적용에서는 상당한 다양성을 보여주며, 연설과 신약의 다른 곳에서 수집할 수 있는 초기 설교의 빈약한 증거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일치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가 그에게 말한 것을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였겠는가? 그가 취했다고 주장되는 노선과 매우 다른 노선을 취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은 모든 연설이 특정 상황에 실제로 전달되었음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지만 연설과 행위가 전통적인 자료에 기초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역사적 증거를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사실, 그 연설이 결코 축적적 보고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연설문을 큰 소리로 읽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0장과 7절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연설자들이 너무 짧았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곳은, 오 당연한 일이군요, 누가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기가 바울이 있는 곳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다음 날 떠나려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마게도냐에서 밤중까지 연설을 계속했습니다(행 20절, 7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단어, 여기에 있는 몇 개의 단어, 또는 요약이 바로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설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껏해야 우리는 말한 내용을 요약한 것 이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연설도 없고 단지 바울이 오랫동안 한 말만 있을 뿐입니다. 둘째, 예수의 가르침이 특히 그의 제자들에 의해 기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그들이 예수가 가르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배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청중이 초기 기독교 설교자들이 말한 내용을 기억하거나 연사들이 직접 지켰던 것을 기억할 가능성은 훨씬 적습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에 대한 전체 설명입니다. 바울은 리스트라에서 준비된 원고(14절 15-17절)에서 말하거나 나중에 자신의 설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말한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누가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어떤 곳에서는 누가가 말한 내용을 말 그대로 설명하는 데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보낸 천사의 간략한 메시지는 10장에 이어 10장 4~6절과 31절에서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10장 22절과 33절을 보면 천사가 베드로에게 방금 나열된 두 가지 보고에 포함된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누가는 메시지의 일반적인 의미 이상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 하늘의 음성과 아나니아를 통해 그에게 말한 다양한 버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누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는 베스도와 아그립바가 그들의 개인 아파트에서(25:13~22, 26, 30~32) 서로 무슨 말을 했는지 거의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산헤드린 성원들이 말한 내용(4:15~32)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17, 5시 34분부터 40분까지.

전자의 경우, 누가는 통치자들의 공개적인 행동을 통해 그들이 아마도 개인적으로 말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말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산헤드린의 일부 동조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 관해 이야기된 내용의 요점을 알려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대화 내용을 그대로 재현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논평의 효과는 누가가 그의 연사들을 위해 적절한 논평을 할 수 있었고 작성했으며, 우리가 그에게 모든 연설에 대해 문자 그대로 설명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그에게 불의를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연설이 그 자신의 훈련되지 않은 발명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소스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설에서 누가는 초대교회 설교자들이 전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실천은 역시 인용된 투키디데스의 실천과 유사하다고 믿는 것이 여전히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폴리비우스도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연설을 한 단어 한 글자 기억하는 것이 어려웠다"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습관은 연설자들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실제로 말한 내용의 일반적인 의미를 가능한 한 가깝게 고수합니다. 그의 역사 속의 투키디데스 1.22.1. 마지막으로 누가가 그린 바울의 초상화입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제목은 누가가 그린 바울의 초상화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갈.

마지막으로,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묘사와 그의 활동, 그의 신학에 대해 언급해야 합니다. x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은 아마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누가에 대한 사건은 P. Wilhauer 의 에세이에 요약되어 있으며, 자연 신학에 대한 바울의 태도에 대한 누가의 제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유대 율법, 기독교론, 종말론에 대한 견해는 바울 자신의 편지에서 우리가 얻는 그림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x의 비역사적 성격에 대해 학자들을 설득하는 데 특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은 강력하게 비판을 받았고 우리 의견으로는 E. Earl Ellis의 간단한 토론에서 설득력 있게 파기되었습니다.

바울주의 에 대한 Paul Wilhauer, 33~50페이지. Ellis, 누가복음, 45~47페이지. FF Bruce의 일부 일반적인 관찰은 이 점을 확증합니다.

FF 브루스는 사도행전의 바울이자 진짜 바울이다. BJRL, 58페이지.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묘사와 그가 쓴 글 사이에 긴장감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견으로는, 행위들이 비역사적이라고 일축하게 만들만큼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적 가치를 논의할 때 다른 요점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간단한 논평의 효과는 그것이 보고하는 내용에 대한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설명으로서 행위에 관한 강력한 사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해 온 종류의 논증은 그 역사성을 자세히 증명할 수 없으며, 우리는 누가 주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가에게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는 테이프 녹음기를 가지고 모든 사건에 참석한 언론인이 얻을 수 있는 종류의 보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도조차도 일방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초기 교회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주었습니다. 그 역사는 발전의 특정 측면만 다루고 다른 부분은 무시하며,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하고 동정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접근한다면, 저자가 제공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저자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것을 더 잘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사도행전의 기원에 대해 몇 가지 개요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원작자. 앞의 논의 전반에 걸쳐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를 그의 전통적 이름인 누가로 지칭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약성서의 저자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울의 의사, 친구, 동료, 골로새서 4:14, 빌레몬서 24, 디모데후서 4:11. 두 줄의 주장이 이 식별을 선호합니다. 첫째, 사도행전의 내적 증거가 있다. 어떤 구절들은 1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그것이 바울의 동료의 펜에서 나온 것이며 이 출처의 저자가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문체의 변경 없이 사도행전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

이 바울의 동무가 누구였는지 물을 때, 바울이 로마나 가이사랴에서 언급한 여러 사람 중에서 디모데, 아리스다르고와 같이 x에서 이름으로 언급된 여러 사람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감옥 편지의 유래. 누가는 분명한 이름으로 눈에 띄니다. 둘째, 초대교회 저술가들의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는 주후 180년경에 누가가 사도행전 세 번째 복음서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이레나이우스의 증거입니다. 이 시점부터 전통이 확고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의 소위 반마르시오파 프롤로그인 모라토리엄 정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저술가들의 증거에 따르면 3세기 초부터 그 전통이 논쟁의 여지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2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바울 서신과 하나의 복음으로만 이루어진 신약성경을 열광적으로 추종했던 마르시온은 누가복음을 자신의 복음서로 선택했다.

이는 아마도 그가 이 책을 바울의 동료가 쓴 것으로 바울적 관점을 표현한 것으로 여겼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마르시온은 이른바 정경이라 불리는 자신의 정경에 사도행전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의 저자임을 그가 인정한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메니아어가 아닌 아르메니아에서 온 아르메니아 출처에 사도행전 20:13의 변형된 본문이 있는데, 이는 다시 사도행전의 옛 시리아어 버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용문으로 읽혀 있지만 나와 루크와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가까운 인용문으로 배에 탔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원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초기 서기관이 이 짧은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해석이 2세기 초에 기록될 수 있는 소위 사도행전 11장 28절의 서양 본문을 편집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믿을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서구 본문의 증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레나이우스와 그와 같은 견해를 공유한 다른 사람들의 평결이 단순히 사도행전의 짧은 구절에서 지능적으로 추론한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부분적으로 사도행전의 저자에 관한 독립적인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지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점이 유효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설명한 전통이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식별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그 전통이 단순히 신약성서의 증거로부터 추론된 것이라면 바울의 다른 동료가 지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복음서가 누가의 저자임을 지지하는 전통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의 전통과 마찬가지로 훌륭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바울의 초상화와 역사적인 바울의 초상화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곡 시기에 관해서는 하워드 마샬의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한 사건 직후에 초기 교회에 대한 미묘한 그림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초기 날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증거가 모호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 누가복음은 바울이 로마에서 2년을 보낸 후 아마도 그의 죽음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반면에 그는 자신의 경력을 어떤 관점에서 되돌아본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사도행전의 구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수 있으며 완성된 작품은 AD 70년경에 발행되었을 수 있다는 FF Bruce의 견해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중요한 지점, 즉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전파한 것으로 상징되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의 완성이라는 중요한 지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절정에 딱 맞는 장면이었고, 여기서 Luke는 기꺼이 자신의 계정을 종료했습니다. 작곡 장소? 사도행전의 날짜가 불확실하다면, 그 구성 장소와 의도된 독자층의 위치는 더욱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결론. 저자의 날짜와 사도행전이 기록된 장소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이 요소들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지 않는 한 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런 다음 책 자체를 밝히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만약 누가가 더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다면, 사도행전이 바울의 동료인 누가가 더 이른 시기에 기록했다면, 그것은 2세기 초에 알려지지 않은 저자에 의해 기록된 것보다 역사에 더 나은 기초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기.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교회의 특정한 역사적 상황이 있었는지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교회 생활의 특정한 위기에 대처하려고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의 동기는 덜 명확하게 정의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책의 명료성과 가치는 그 책이 쓰여진 정확한 상황에 대한 지식과는 크게 별개입니다. 사도행전 해석의 세밀한 요점은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 책의 본질적인 주제는 기본적으로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우리는 마샬의 사도행전 신학에 대한 취급을 사도행전의 영속적인 가치로 마무리한다. 어떤 경우에는 누가와 관련된 교회의 특별한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와 이 기본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모든 부수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여러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 또는 두 개의 샘플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누가 자신은 목회적인 관심을 가진 작가로 보인다.

그는 교회를 돕고 돕기 위해 글을 씁니다. 그는 교회사가 냉담한 학문 분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단번에 보여줍니다. 둘째, 누가는 자신의 관점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임무는 선교임을 분명히 한다.

그는 교회의 내적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교회 임무의 이 측면에 대부분의 관심을 집중합니다. 더욱이 누가에게 선교는 전도, 예수님의 좋은 소식의 선포, 회개와 믿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셋째, 누가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교회 내에서 인종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넷째, 누가는 교회의 사명을 위해 교회를 인도하고 능력을

부여하는 데 있어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사명은 단순한 인간의 성취가 아닙니다.

영의 은사는 선교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교회나 교인 개개인의 개인적인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은 누가가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인도되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로 요약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는 영광의 신학, 신학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 글로리아.

그는 복음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복음의 승리는 오직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십자가 신학, 곧 신학을 가장 강력하게 믿었다. 십자가.

20년 전, 나는 독일의 카셀이라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큰 피해를 입은 후에도 대부분은 여전히 황폐화된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낡은 건물의 잔해 속에는 여전히 부서진 교회의 껍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의 일부만이 남아 있었지만 한쪽 끝에는 여전히 하늘을 향한 첨탑이 있었고 출입구 위에는 돌에 새겨진 비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한다. 누가는 그 상징성을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버트 A. 피터슨(Robert A. Peterson) 박사와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9, 나, 하워드 마샬, 사도행전의 역사성, 누가의 바울의 초상입니다.